

대학교 신입생 모집단위의 광역화와 전기공학

장 석 명

(*충남대 공대 전기공학과 교수, 전기공학교육위원회 부위원장)

1. 서 론

전국 각 대학에서는 3월초 새시대 새희망에 부푼 새식구들을 맞아 들인 바가 있다. 그러나 대학인 모두의 진심어린 축복을 받고 있지는 못하고있는 현실인 것 같아 큰 걱정이다. 그 이유는 진작부터 정부주제로 진행되어 온 소위 '교육개혁'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광역화 모집단위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원인을 알아 보기 위하여 2000학년도 전국 주요 대학의 신입생모집에 관하여 면밀한 분석을 해 보기로 한다.

이제

- 각 국립대학의 정시모집 전체인원과 모집단위수, 공학계와 비공학계의 모집단위수, 전기공학분야의 모집단위수등의 현황과 비교분석,
- 광역화 모집에 전기분야현황

을 검토하여 국가 인력수급계획, 광역화의 정도, 광역화에 따른 전기공학분야의 영향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해야 하는 대학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면밀한 계획을 세워, 가깝게는 2001학년도로부터 멀게는 미래세계까지의 신입생의 모집계획 수립에까지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000학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는 1999년 5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바 있는 대학자율조정을 기본으로 하는 '2000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의하여 각 대학에서 자체적인 학생선발계획을 세워 교육부에 승인 신청한 바가 있고, 이에 교육부는 접수한 내용을 검토하여 1999년 10월 14일에 그 결과를 '2000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결과 통보'를 '대행 81413-287'의 공문으로 최종결과를 각 대학에 보내서 입시를 치루게 하였다. 교육부에서 충분히 보장한다는 '대학정원의 자율조정권'의 부여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에서는 '교육개혁과 모집단위의 광역화'를 너무 자의적으로 앞선 해석을 하여 그릇된 계획 및 시행

을 하므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게 된 현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각 대학별 모집인원과 모집단위 현황

2.1 국공립 대학

표. 1에서는 전체 모집인원이 3,500명 수준이 넘는 주요 국립대학별 정시모집인원과 모집단위를 나타낸 자료이다. 모집단위수는 경북대가 93개, 서울대가 87개정도이며 대부분의 대학이 60개에서 70개정도가 되지 만 충남대와 충북대는 각각 31개, 35개로 광역화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표.2에는 국공립대학의 공학계 모집인원 및 모집단위 뿐만 아니라 공학계, 전기분야, 전기분야 이외의 모집단위 및 인원, BK21과 관련성 등에 관한 자료도 나타내고 있다.

2.2 사립 대학

표 2에서 보는 바와같이 모집단위에서 사립대학교의 경우 모집단위수는 중앙대의 81개를 제외하고는 국립에 비하여 전체 모집단위가 비교적 작다. 또한 공학계를 단일로 모집하는 대학이 4개학과가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즉 고려대, 단국대, 동국대, 연세대가 공학계 전체로 선발하여 2학년 또는 3학년에서 전공학과 배정을 하는 것이다.

3. 비교분석

표.1과 표.2를 분석하기 쉽도록 그림 1, 그림 2, 그림 3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냈다. 모집인원 3,500명 이상의 국공립 대학을 대표적인 사례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3.1 각 대학별 전체모집인원과 모집단위 사례비교
그림 1은 표.1의 주요 국립대학의 정시모집 수와 모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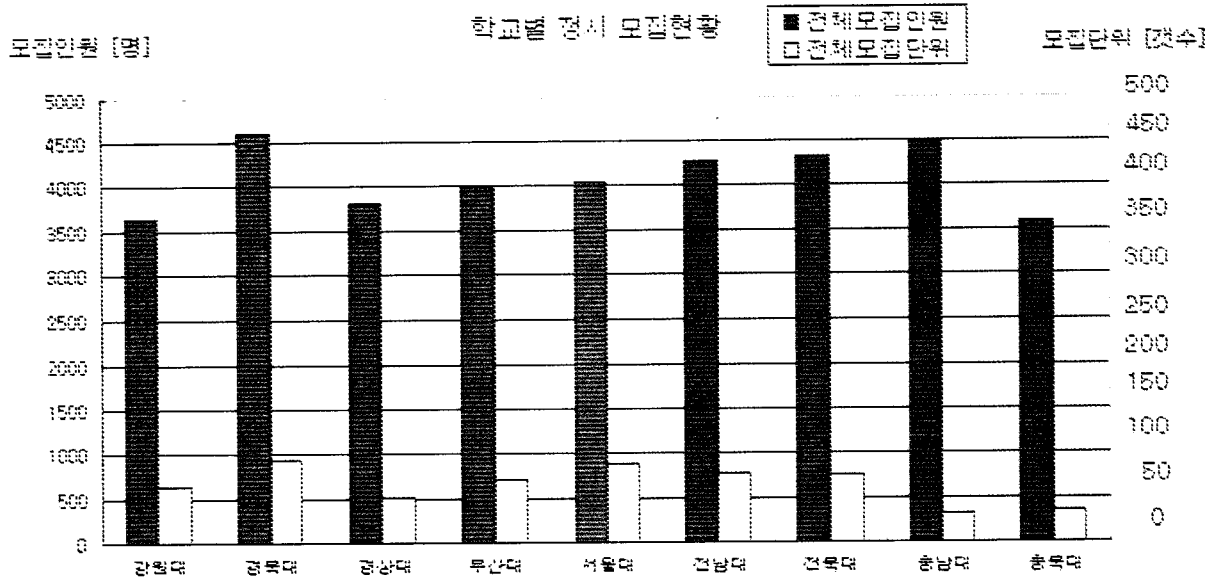


그림 1. 2000학년도 학교별 모집인원과 모집단위(국공립, 정시모집)

위를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그림 2는 각 대학별 모집 단위별 평균 학생수를 조사한 것으로 모집단위별 평균인원수가 충남대의 경우는 약 145명, 충북대는 105명 정도로 제일 심함을 볼 수 있다.

3.2.2 각 대학별 모집단위별 평균인원 현황

그림 3은 공학계의 전체 모집인원과 모집단위를 나타내고 있다. 모집인원은 충남대가 1,390명, 전북대가 1305명, 충북대가 1,226명 수준이고,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가 각각

1,123명, 1,084명 수준이다. 그런데 모집단위는 충남대가 5개, 충북대가 4개로 가장 적고, 경북대, 서울대가 각각 12개, 11개 정도이다. 이로써 충남대, 충북대의 공학계 광역화의 정도가 매우 심함을 알 수가 있다.

그림 4는 공학계의 광역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3의 자료에 의해 국립대학의 공학계 모집 단위별 평균 학생수를 조사한 것이다. 모집단위는 경북대, 서울대, 전북대가 각각 12개, 11개, 8개이다. 한편 모집단위별 평균 학생수는 충남대가 약 350명, 경상대, 부산대, 충북대, 강원대가 각각 150명 정도가 됨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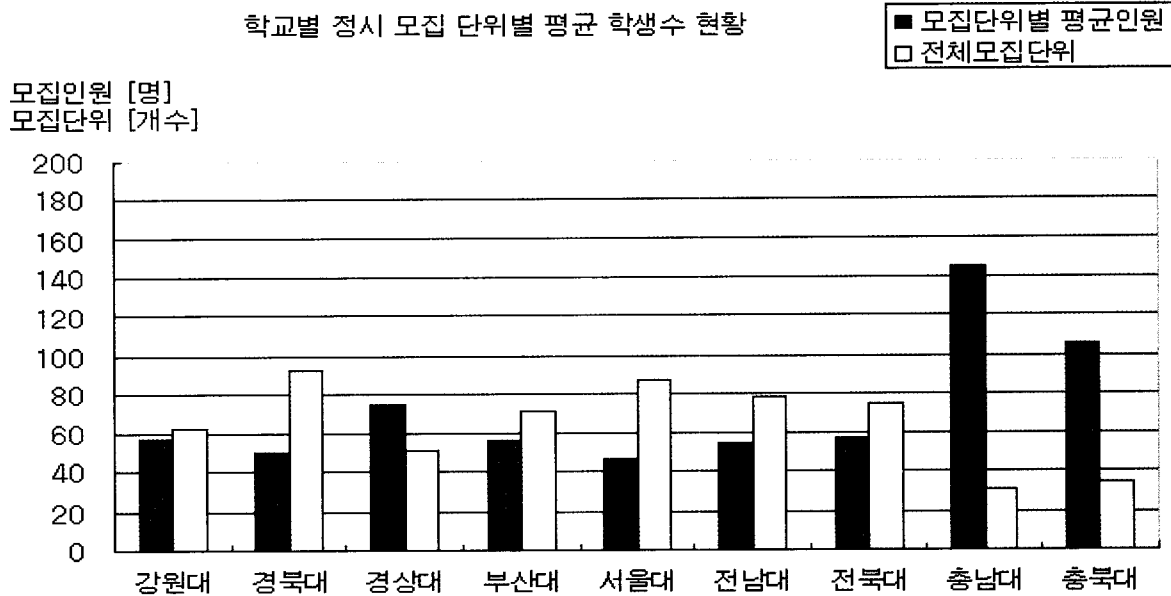


그림 2. 2000학년도 대학교 신입생 모집단위별 평균학생수(국공립, 정시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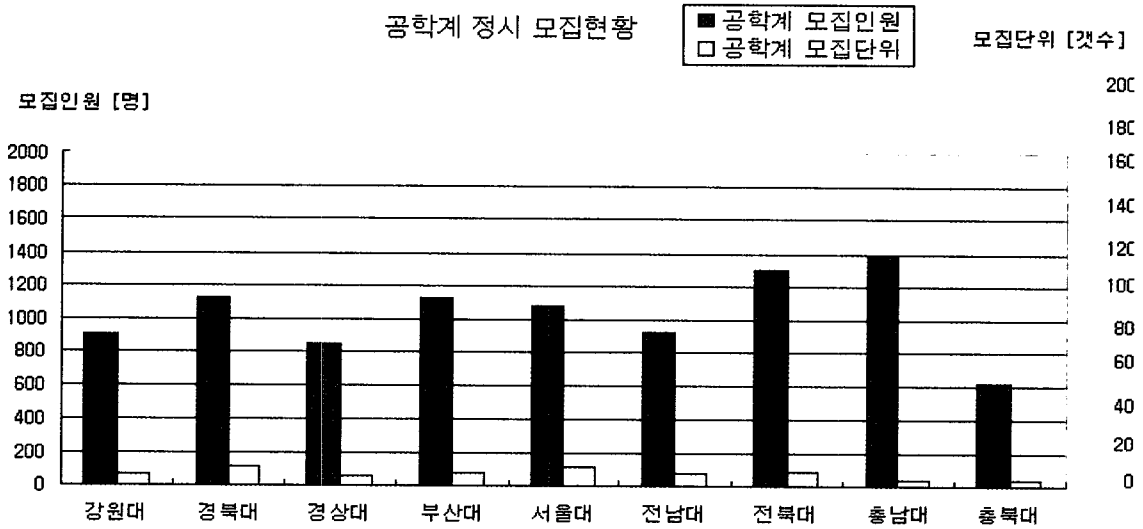


그림 3. 2000학년도 각 대학교의 공학계 모집인원과 모집단위 수(국공립, 정시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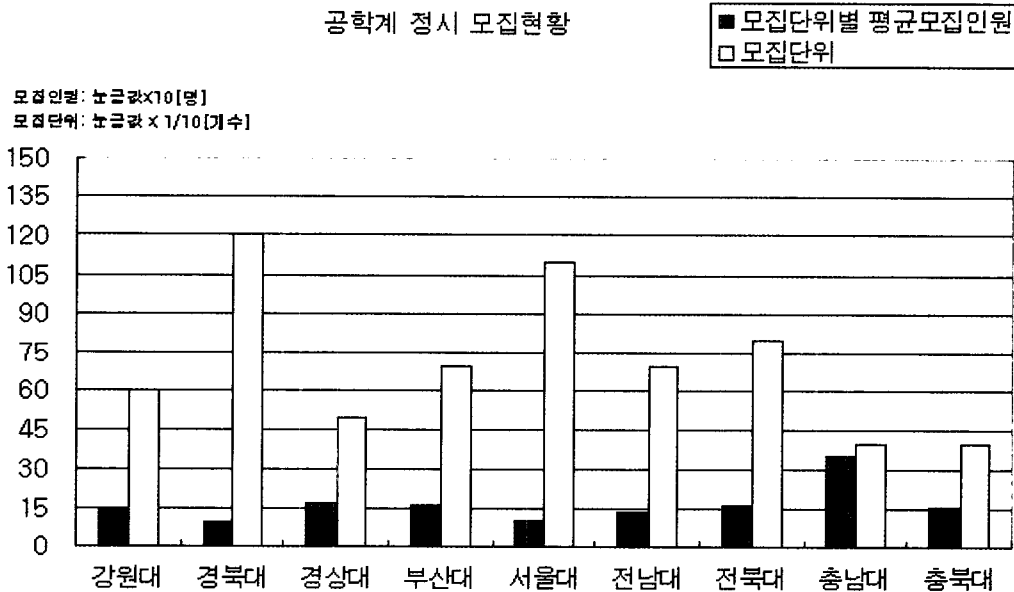


그림 4. 2000학년도 대학교 신입생 공학계 모집단위별 평균학생수(국공립, 정시모집)

3.3 각대학별 비공학계와 공학계의 모집단위 사례비교

그림 5는 각 대학별 공학계와 비공학계의 모집인원과 모집단위수를 조사한 자료이다. 대체로 비공학계 모집인원이 공학계 모집인원의 2배이상인 것을 볼 수 있으며, 경북대, 경상대, 전남대, 서울대, 부산대등의 불균형이 특히 심하다. 그림6은 비공학계와 공학계의 광역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그림이다. 공학계의 모집단위별 학생수가 비공학계열에 비하여 매우 크다. 특히 충남대가 350명으로 단연 크고,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 충북대 150명 이상이 된다. 그에 비하여

비공학계열은 최대 80명 내외로 공학계에 비하여 광역화 정도가 작다.

3.4 전기분야의 모집인원과 모집단위 수

표 1에서는 전기분야와 비전기분야의 모집분야도 아울러 나타내고 있다. 충남대, 전북대, 부산대는 전기분야의 모집단위는 1개씩으로 각각 모집인원이 402명, 450명, 202명이며, 충북대도 자연대의 컴퓨터를 제외하는 경우 1개로 모집인원이 516명이어서 최대로 광역화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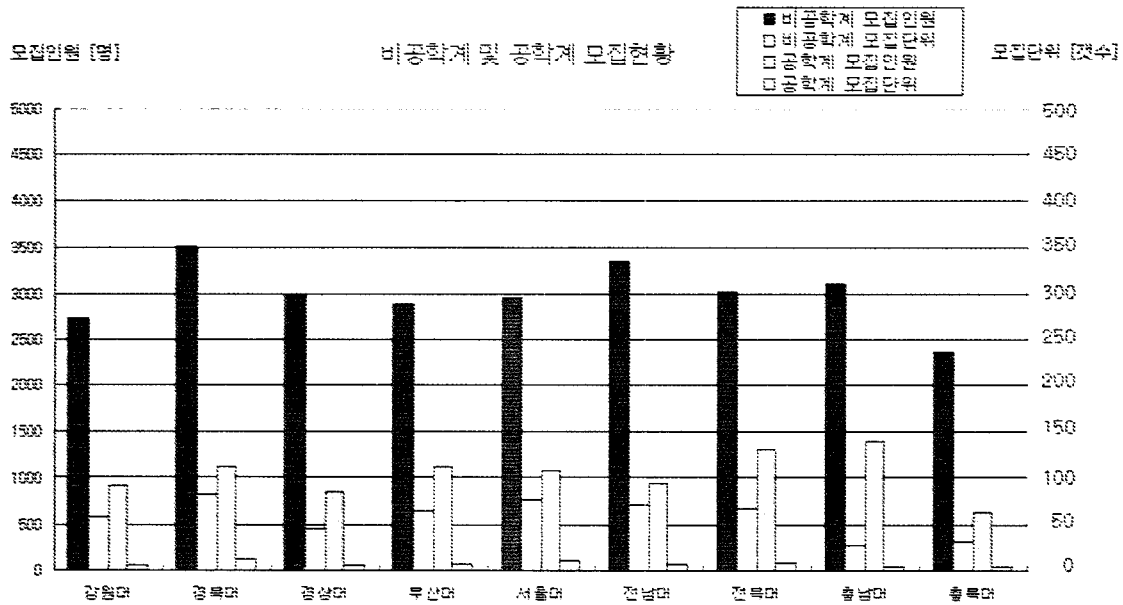


그림 5. 2000학년도 각 대학교의 공학계와 비공학계의 모집인원과 모집단위 수(국공립, 정시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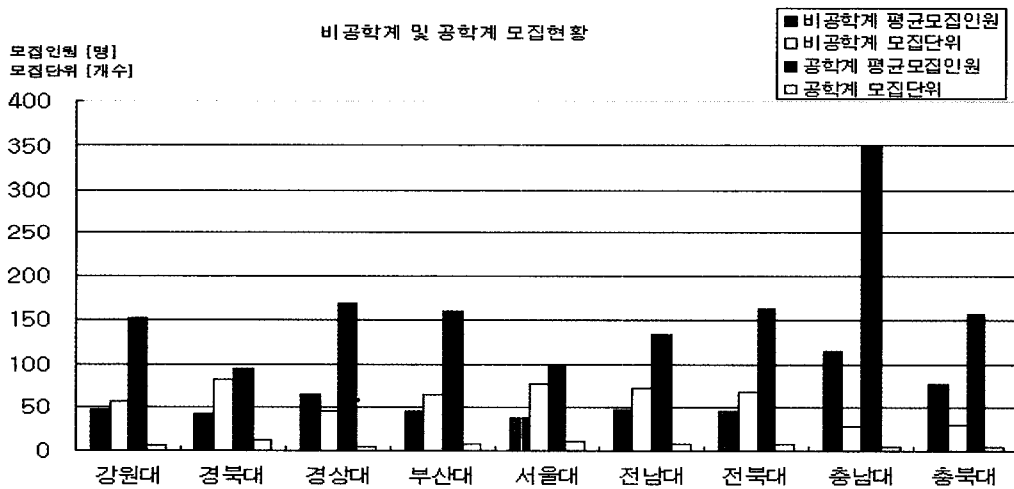


그림 6. 2000학년도 공학계 및 비공학계 모집단위별 평균학생수(국공립, 정시모집)

3.5 분석

그림 1로부터 그림6까지를 분석할 때 대학 전체 모집에서의 광역화는 충남대, 충북대, 경상대, 전북대의 순서로 심하다. 또한 공학계열의 광역화 정도는 그림6으로부터 충남대, 전북대, 경상대, 부산대, 충북대순으로 심하게 되어있다.

4. 광역화 모집에 따른 전기분야현황

4.1 국가 인력수급계획

필자는 최근 대학원생 십 여명을 동원하여 하루동안에 걸쳐, 국가 인력수급을 예측한 자료를 찾자 시도하였으나

아무 소식이 없었다. 통계청, 과학기술부, 교육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어느곳에도 없었으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력배출에 대한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자료가 아무데도 전혀 없다는 의미이다.

물론 5.16이후의 대규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같은, 정밀한 계획이 서 있지 않는 상태인, 다원화 시장경제 정책하에서는 인력수급에 대한 정밀예측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정밀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거시적'인 인력수급계획은 수립해야 하고, 거기에 맞추어 적정인력은 차질없이 잘 교육되어 배출되어야만 하는 일 아닌가?

최근 농축산업 분야에까지도 정책이 없는 무계획적인 경우에는, 특정 품목으로의 편중 현상을 초래하여 수확기에는

가격이 폭락되어 모두 폐기해야 만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무계획적인 주먹구구식 경쟁 만으로는 않 된다고 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모두가 공멸한다는 위기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작물이나 축산물의 종목선택에서부터 출하시기까지에 걸쳐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조정하는 '과학화 된 농축업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그런데 만일 교육부가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및 배출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없이 '교육의 다양성과 무한 경쟁' 이라는 그럴듯한 미명하에 교육에서까지도 적자생존의 원리 만 강조하는, 주먹구구식의 시장경제 논리에 만 맡기겠다면 너무나 무책임한 정책이다. 이러니 최근 교육부장관을 부총리 급으로 격상시켜 주겠다는 정부발표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교육부가 없어지는 것이 낫다'고 까지 널리 회자되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

4.2 대학교육 개혁

최근 교육부는 오히려 국가인력의 합리적인 계획에 의해 배출되고 수급되는 정책보다는, 열악한 재정형편을 들어 BK21사업등과 같이 단기적이고, 변칙적이며, 비합리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따라서 정상적이면서도 맑은 교육재정이 아닌, 시장논리의 변칙적 색깔을 띠는 자금의 확보에 치중하는 듯 하다. 또한 그렇게 확보된 얼마 안되는 재정으로 교육부 시책에 앞장서는 소위 '완장' 역할을 충실히 하는 대학에 몇 푼씩 나눠주는 이른바 '사탕' 정책이 행해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무리일까? 그것도 몇 안되는 교육학자들의 탁상적인 편견으로 이루어진 비합리적인 시책으로 말이다. 이것은 재정상태가 열악한 대학의 약점을 최대로 이용한 '대학의 길들이기' 정책일 뿐더러, 대학의 자율과 정책과는 정말로 거리가 먼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되는 근본 원인이 된다.

그 한 예로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의 사업으로 지금까지 전국 각 대학에 지원해온 과학기술기초연구사업에서 455억원, 자유과제공모과제에서 209억원, 핵심분야 400억원,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예산 1134억등의 각 명목의 연구자금을 몽땅 모아 2000억을 마련하여, BK21사업을 무리하게 시행하느라고 전국 각 대학을 1999년도 한해 내내 회오리 바람에 흔들리게 한 것을 들 수 있다. 한시적인 사업에 의하여 교육이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 문제이다. 2000억원이란 예산은 미국 명문사립대학 연구비의 10%수준에도 못 미치는 액수이다 (2000, 3.13, 동아일보).

게다가 금년에는 그것도 봉급수준이 열악한 상태인 국립대 교수들에게 주던 연구수당을 모아 조성한 500억원을 기금으로 교육의 '개혁'에 앞장서는 대학에 '사탕'을 주겠다고 지난해부터 엄포를 놓고 있으니 금년도의 교육부 회오리 바람은 어느 정도가 될지 걱정이다.

이에 따라 입시 모집단위의 광역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대학의 자율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학은 대학에 맡긴다'는 교육부의 대학 자율화 정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니 대학자율화는 야누스인지?

4.3 대학의 광역화

국가적인 인력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무조건적 입시모집 단위의 '광역화'는 국가인력 배출의 비효율적인 편중화를 자 초한다. 그 결과로 비인기이기는 하지만 모든분야에서의 필수적 기간이 되는 학문들이 사양화되어 국가산업의 위기를 불러 올 전망이다. 여기에 소위 새롭고 인기있는 첨단 의 이름이 아닌, 전통의 핵심 기간학문인 전기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등은 비인기화 되어 이 분야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꾸 줄어들고, 정보통신, 컴퓨터 등 소프트웨어 분야는 눈덩이가 불어나듯 '공룡화' 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전기, 기계, 화학등의 분야는 필요하지 않단 말인가? 작금의 국내 추세는 모든분야에서의 '바뀌'의 열풍에 휘말려 전통의 기간학문은 국가와 산업사회에서의 큰 수요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다. 소위 전기공학이나 기계공학, 화학공학등의 분야는 물론 전자공학분야 까지도 퇴조되고, 정보통신, 컴퓨터, 건축학등의 분야 의 인기는 맹목적인 정도로 인기가 상한가 이다. 즉 제조업과 관련된 '하드웨어' 산업관련 학문분야가 '소프트웨어' 관련분야의 인기열풍에 급격히 사그러 드는 형국이다. '이것이 과연 옳은 현상인가?' 하드웨어 산업이 없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제대로 존재할 수 있을까? 최근 소프트웨어 분야인 정보통신이나 건축분야의 열풍으로 인력이 편중되어, 제조업분야에서의 인력부족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머지않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를 것은 뻔하다.

모집단위와 관련한 교육부의 입장은 각 대학에 보낸 공문 '대행81413-4('99.5.27)', '대행 81413-37('99.9.7)', '대행 81413-287('99.10.14)'을 참고하면 분명하다.

'백화점식 학과 설치'를 지양하기 위한 유사학과 통폐합일 뿐, 총정원 범위내에서의 모집단위 신.증설, 폐지, 통폐합등에 관한 대학 자율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편중되게 시행하고 있을 뿐이다.

각 대학에서 자율조정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는 한 신입생 모집단위의 광역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문제점은 점점더 더 크게 발생할 것이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4.4 종합평가: 전기분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립대학의 정시모집의 경우, 공학계 모집인원중에서도 '전기'분야의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کم에도 불구하고 모집단위가 더 광역화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기.전자'단위가 대부분이며 충남대, 충북대등은 '전기'는 흔적도 없이 아예 정보통신으로 만 일원화 되었다. 사립대학은 '정보통신, 전자컴공, 전자, 전자정보, 전자제어'등으로 다양하게 명명되어 역시 이름 자체에서도 아예 '전기'가 제외되고 있다. 물론 '광의의 전기공학'은 이들 모두를 포함한다고 일부 전기공학인들은 굳게 믿고 있다. 그러나 수학, 물리학은 물론, 전자기학, 회로이론까지도 모르면 모를수록 좋다는 입장인 '정보통신, 컴퓨터'분야 관련자들이 과연 자기들도 '전기'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필자생각으로는 ‘화공, 토목, 건축, 기계, 의학’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비를 사용한다고 해서 ‘전기분야’라고는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정도의 견해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전기공학’의 학문특성은, 전공기초부터 ‘정보통신, 컴퓨터’분야와는 달라서 ‘광역의 전기공학’내에서 ‘좁은 의미의 전기전공’과 전기로부터 파생되어 나간 ‘정보통신전공’, ‘컴퓨터 전공’의 분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전기공학이 정보통신이나 전자공학, 컴퓨터공학의 일부일 수는 없다. 최근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광역화’는 모집단위에서도, 이른바 ‘melting’ 상태의 화학 결합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정보통신공학부’, ‘전자정보학부’ 등으로 하는 단일교과 과정내에서 전기공학은 몇 개의 선택과목 설정만으로 대체하게 되는데, 이로써는 오랜동안 발전해온 ‘전기공학’의 광범위한 학문적인 내용을 수용할 수가 없다. 또한 산업의 필수요원으로서 60년대부터 뿌리 내린 ‘전기기사제도’에서 전기기술자들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전공기술 내용이 교육 될 수가 없다. 만일 광범위한 학문내용을 몇 과목으로 축약하게 되면 이론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난해한 교과목이 될 수 밖에 없고, 그랬을 때 유행에 편승하는 학생들이 기피 할 것이 뻔하므로 ‘좁은 의미의 전기공학’은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조산업분야에서의 인력은 물론이고, 국가산업의 기간이 되는 전력사업에 필요한 전기기술자양성에도 부응하지 못하여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따를 수가 없게 된다.

4.5 광역화모집에 따른 문제점

광역화모집에 따른 문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즉

- 학생수가 수 백명, 학부소속교수가 수십 명씩이 되어 소속감 및 동질성 결여로,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대변되는 개인주의의 팽배로 인한 인간성 결핍, ‘모래알화’를 더욱 부채질하게 된다.
- 일부 인기분야로의 육성 편중에 따라 이들이 사회에 배출되는 시기에는 각 분야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되어, 비인기 분야이기는 하지 만 필수 기간학문인 ‘전기공학’등의 인력배출이 없게 되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 또한 소위 인기분야의 인력이 과다하게 배출되어 사장되던 고급인력의 낭비로 국가발전에 장애를 초래한다.
- 여러 학과가 통합되는 경우 입학생의 성적 수준이 낮아져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 다양하고 무한 경쟁적인 미래기술사회는 여러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팀 워크’로 일을 해결해 가는 이른바 ‘System Integration’ 개념이어야 하는데 ‘모래알화 된 1인’교육의 환경에서 배출된 인원은 복잡한 시스템 기술에 적용하기 어렵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 모집단위의 광역화에 대하여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화학공학, 토목공학, 기계공학, 의학, 생물학등을 단일화 하라거나 통합하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각 분야가 존재해야 하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기공학, 전자공학, 정보

통신, 컴퓨터등의 각 분야는 현대사회에서 각각의 독자적인 역할이 없고, 각각으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없단 말인가? 최근 이들 분야를 포함한 산업기술 전반의 급속한 발달로 각각의 독자적인 필요성과, 독자적인 존재이유가 전보다도 더 확실해져 가고 있다.

전공과목이 크게 다르고, 졸업생의 진로와 역할이 각각이라면 오히려 통합보다는 특성화시켜 반드시 존재시켜야 만 한다. 더구나 다양화되고 무한한 경쟁이 되는 시대일수록 대학은 교양인보다는 더욱 특별한 전공인을 양성해야 만 한다. 거기에다가 여러 전공인끼리 협력하는 ‘팀워크’ 정신으로 시스템을 다루어 가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만 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전공교양 만을 익힌 정도로는 깊고 심화되어 가는 기술을 어떻게 담당하게 할 것인가? 미래기술사회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혼자서 이런 저런 기술을 다룰 수는 없다. 여러 분야의 전문인이 모여 협력하며 일을 공동으로 해결해 가는 ‘System Integration’ 개념이라야 만 한다. 그러자면, 다양하게 교양정도의 전공교육 만을 받은 ‘1인’ 만으로는 않된다.

4.6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사례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는 당초 BK21 지역대학 육성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우수한 학생을 유치 할 수 있고 열악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요구에 의해 ‘정보통신’분야의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기존의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파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자연대의 컴퓨터학과까지 가세된 6개 학과가 이른바 ‘melting/fusion’ 상태로 통합하여 학사조직이 정보통신공학부로 되면서 전공과 교과과정도 정보통신공학에 만 일방적으로 맞추어졌다. 따라서 전기공학과가 ‘정보통신’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위 학부로 전기공학이 포용되어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기공학이 해체되는 결과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전기공학과에서는 BK21사업에 참여하지 않고자 하였으며, 현행대로 독립된 형태로 있기를 결정하였었다. 그런데 짧은 시일에 급박하게 추진되는 BK21사업 준비 단계에서, 당시 전기공학과 학과장이며 준비위원장이었던 학과소속 모교수가 학과교수들의 의견수렴과정을 전혀 밟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의견이 일단 정해진 후에도 학과교수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신청에서 빠지지를 못하였다. 지금 생각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어떻게 든 참여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전기공학과는 제외되고자 하는 필사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으니’ 너무도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 었다. 즉 전기공학과 교수 일동의 일관 된 의견을, 당시의 학과장이며, 추진위원장이었던, 현재의 사업 단장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진로 및 실험실/기자재를 학과회의 한번없이 모두 투입하여 추진 하였던 것이다. 단장자리 욕심하나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막 부가내인 1인의 독선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었으니, 이런 경우는 가히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이 었다.

그런 와중에서 전기공학과로서는 전혀 원치 않는 BK21

사업에 불행히도 선정되었다. 이로써 6개과중 취업을 평균이 최고인 전기공학과가 없어지게 된 것이었다. 학교에서는 1999년 11월 BK21실사를 기화로 소속교수를 정보통신공학부로 강제로 전보시키려고 하였으나, 현재는 전기과 교수 9인중 현재 단장을 포함한 2인의 교수는 정보통신공학부로 전보되고 전기공학과에 그대로 남기를 강력히 원하는 교수 7인만 학과 소속으로 남아 있다.

현재 BK21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전기공학과도 백방으로 줄기차게 독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백년대계라는 인재육성의 '대학교육'이 BK21이라는 한시적인 사업의 '사탕'에 의하여 뒤죽박죽이 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5. 대학정원조정과 관련된 교육부 지침 에

2000학년도 신입생으로 이미 모집하여 입학까지 한 바가 있는 대학정원조정 실시과정은 아래와 같은 교육부의 지침에 의한 것이다. 즉 1999년 5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바 있는 대학자율조정을 기본으로 하는 '2000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 지침'에 따른 것이다. 관련내용을 요약하여 아래에 소개한다.

- 2000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 지침(대학 81423-4, '99.5.27, 교육부) 관련 내용중 요점
 - 지방사립대학의 학생정원 조정권은 대학에 일임
 - 국.공립대학은 총정원 범위내에서 모집단위 신.증설, 폐지, 통폐합등 자율조정
 - 관계법령에 의하여 규제되는 수도권 소재 대학과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도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모집단위 신.증설, 폐지.통폐합, 단과대학 개편, 모집단위별 정원 조정등 자율조정권 부여

- 교육부가 각 대학에 보낸 공문 (대행 81413-287, 1999.10.14) '2000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결과 통보' 내용 중 관련부분 요점

관련공문 '대학 81413-4('99.5.27)', '대행 81413-37('99.9.7)'과 관련하여 2000학년도 정원조정결과를 1999년 10월 14일에 각 대학에 아래와 같이 최종 통보하여 2000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시행하게 되었다.

- 국.공립대학의 학부.학과.전공 신.증설은 기존시설과 교수를 활용하는 범위내에서 인정
- 각 대학에서 기 신청한 정원범위내에서의 모집단위별 신청내역은 원안대로 수용
- 모집단위명과 개설전공 명칭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000학년도 대학 정원조정 지침 (대학 81423-4, '99.5.27, 교육부)에 의거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

위의 결과로부터 교육부에서는 대학정원의 자율조정권을 각 대학에 충분히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실제로는 각 대학당국에서는 '교육개혁 및 모집단위 광역화'에 대하여 너무 자의적으로 앞선 해석을 하여 그릇된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음을 명확히 파악 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교수들이 너무 법률 또는 지침, 공문등의 행정등에 너무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 아닌가 한다.

6. 결 론

2000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과 신입생모집현황등에 관한 관련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았다. 즉

- 주요대학의 정시모집 인원과 모집단위수, 공학계와 비공학계의 모집단위수, 전기공학분야의 모집단위수등의 현황과 비교분석,
- 광역화 모집에 따른 전기분야현황

을 분석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사회에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대학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면밀한 계획을 세워, 가깝게는 2001학년도로 부터 백년 대계의 먼 미래세계까지의 대학 신입생의 모집계획 수립에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교육부에서 대학에 이미 부여한 바가 있는 대학정원의 자율조정권과, 실제로 각 대학당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실과의 괴리가 심각하게 존재함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만 할까?

이로 인한 교육의 악영향, 인기위주의 선택으로 기간학문 및 제조산업분야 관련 학문의 인력배출 퇴조로 인한, 국가 산업인력의 불구상태 배출의 구조형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 인가?

강력하면서도 신속히 추진되는 교육개혁등 급변하는 어려운 상황들을 잘 헤쳐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교수들도 관련 법률, 지침, 공문등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에 대하여 잘 알고 대처해야 만 한다고 생각된다. 모르고 따르기만 하는 경우에 야기되는 교육의 시행착오적인 모든 문제점은 결국 백년대계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 할 수는 없다.

참고문헌

- [1] 1999년 11월 13일자 각 일간신문의 '2000대입 대학별 모집정원'
- [2] '2000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 지침', 대학 81423-4, '99.5.27, 교육부
- [3] 교육부가 각 대학에 보낸 공문 '2000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결과 통보',대행 81413-287, 1999.10.14
- [4] '두뇌한국21사업 관리.운영 지침' 교육부, 1999.10.28
- [5] '두뇌한국21사업 추가 운영지침' 교육부, 2000.3.4
- [6] 두뇌한국21사업 관련백서, I권, II권,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표 1. 국.공립대 2000학년도 신입생 모집현황

구분	학교명	모집단위수 및 모집인원			공학분야 모집단위		전기분야 BK 관련여부	BK 사업단명	비 고
		전 체 (학생수)	공 학 계 (학생수)	전기분야 (학생수)	전기분야	전기이외 분야			
국립	강원대	63 (3,637)	6 (907)	2 (359)	전기전자 전자환경	건축조경 기계공 토목지구 수리정보	●	멀티미디어	
국립	경북대	93 (4,601)	12 (1123)	3 (559)	전기전자 컴퓨터공 컴퓨터(자)	공속공 기계공 공업화학 건축공 토목공 화학공 고분자 무기재료 염색공 환경공	●	정보기술	분리 추진중
국립	경상대	51 (3,822)	5 (844)	3 (369)	전기전자 컴퓨터(자) 통계정보(자)	건설공 산업시스템 응용화학 재료공학		수송기계	
국립	대전 산업대	11 (2,082)	7 (1,246)	3 (725)	전기전자 제어기술 정보통신	기계공 토목환경 신소재공 응용화학	●	정보통신	
국립	부경대	33 (4,027)	9 (2,071)	3 (725)	전기제어 전자컴퓨터 화상정보	기계공학 화학공학 산업안전 재료공학 건축공학 건설공학		지역선도형 기계산업	
국립	부산대	71 (4,009)	7 (1,122)	1 (202)	전기전자	기계공 응용화학 재료공학 건축도시 응용기계 토목조선	●	산업자동화 및 정보통신	
국립	서울대	87 (4,033)	11 (1,084)	2 (292)	전기공 컴퓨터공	재료공 지구환경 기계항공 응용화학 건축 산업공 섬유고분자 원자핵공 조선해양			
시립	인천대	22 (1,552)	8 (434)	2 (171)	전자 정보통신	기계공 토목공 건축공 산업공학 재료공학 안전공학			분리결정
국립	전남대	78 (4,276)	7 (930)	3 (344)	산업전기 정보통신 컴퓨터정(자)	건축 건설환경 자동차 신소재 응용화학		수송기계	산업전기로 분리
국립	전북대	75 (4,325)	8 (1,305)	1 (450)	전자정보	기계공학 신소재 토목환경 화학공학 산업공학 섬유공학 자원공학	●	전자정보	
국립	제주대	52 (2,793)	4 (354)	3 (192)	전기전자 통신컴퓨터 컴퓨터(자)	기계생산 건축공학		해양수산	
국립	창원대	26 (996)	6 (726)	2 (421)	메카트로 컴퓨터공	재료공학 환경화학 산업공학 건설공학	●	메카트로닉스	
국립	충남대	31 (4,489)	4 (1) (1,390)	1 (402)	정보통신	건설계열 기계선박 신소재공 (공업계열)	●	정보통신	분리 추진중
국립	충북대	35 (3,594)	4 (1,226)	2 (516)	전기전자 컴퓨터(자)	공정공학 기계공학 건설공학	●	정보기술	
시립	서울 시립대	29 (1,755)	7 (624)	2 (202)	전기전자 전산통계(자)	화학 정밀기계 재료공학 토목공 건축도시 환경공			

표 2. 사립대 2000학년도 신입생 모집현황

구분	학교명	모집단위수			공학분야 모집단위		비 고
		전체	공학계	전기분야	전기분야	전기이외 분야	
사립	건국대	32	4	1	전기전자	건축토목군 기계항공 산업섬유	분리 추진중
사립	고려대	32	단일				
사립	단국대	68	단일				
사립	대구대	52	2	2	정보통신 정보과학(자)		
사립	동국대	28	단일		정보산업(자)		
사립	성균관대	32	6	1	전자컴공	화학섬유공 금속재료 기계 건축토목 시스템경영	
사립	송실대	29	3	2	정보통신 컴퓨터	건축학부	분리 결정
사립	아주대	13	3	2	전자공학 컴퓨터	기계산업	
사립	연세대	11	단일				
사립	영남대	49	7	1	전자정보(BK21관련)	토목환경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금속 응용화학 섬유패션	분리 추진중(경북대와 BK21관련)
사립	울산대	38	9	2	전기자동제어 컴퓨터정보	기계자동차 수송시스템 산업공학 화학공 재료금속 토목환경 건축학부	
사립	인하대	22	6	1	컴퓨터공	기계 응용화학 재료공 지구환경 건설공	
사립	조선대	45	13	2	제어계속 정보통신	재료공 고분자공 제어계속 항공조선공 원자력공 토목공 건축공 기계공 자원공 환경공 산업공	전기·제어로 분리
사립	중앙대	81	5	2	전자전기공 컴퓨터공	건설건축 화학공 기계공	
사립	한국외대	53	3	3	전자제어 컴퓨터통신 정보시스템		
사립	한양대	45	11	2	전자전기 전자컴퓨터	건축공 도시환경 재료공학 기계공 시스템공 시스템공 응용화학 건설교통 재료화학 기계산업	분리 추진중
사립	홍익대	40	10	3	전자전기 정보컴퓨터 기전컴퓨터	건설도시 재료화학 건축학 기계공 재료공학 건축공학 기계정보	

* 빗금친 부분은 단일 모집임

저 자 소개



장석명(張錫明)

1949년 7월 3일생.
1976년 2월 한양대
공대 전기공학과 졸
업. 1978년 2월 한
양대 대학원 전기공
학과 졸업(석사). 1986년 2월 한양대
대학원 전기공학과 졸업(공학박사).
1978년-2000년 현재 충남대 공대 전
기공학과 교수. 1990년-2000년 현재
본 학회 평의원. 1999년.1월-1999년
12월 본 학회 전기기기연구회 간사
장. 1999년-2000년 현재 본 학회 편
집이사.